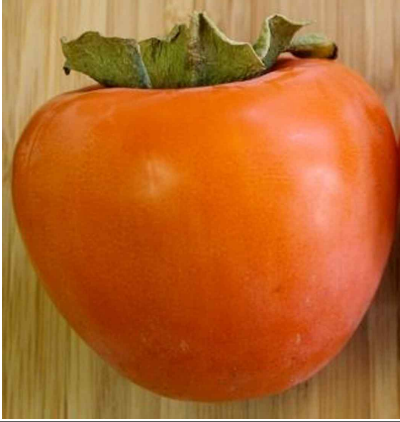


2012년 11월 감(탈삼;脫澁)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 감 시장 동향

일반적으로 미국 과일시장에서의 감은 과일 중 최고의 동양과일로 알려져 있으나 아시아인 마켓을 벗어나면 과일 진열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임. 중국과 일본이 재배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미국 현지를 비롯한 브라질, 이탈리아,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 뉴질랜드 등으로 생산지역이 확대되고 있음. 그리고 작년 7월 27일에는 USDA가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 수입을 허락하는 조례안이 발효되었음.

○ 미국 현지에서 소비되는 감 2종

	
Fuyu (한국식 단감 타입) 식감이 단단하며 당도가 높음. 이스라엘산과 미국산이 시장가격 주도.	Hachiya (한국식 홍시 타입)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식감을 지니며 당도 또한 높은 편임.

- 미국전역에 걸친 감 생산량은 별도로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워싱턴주 자료에 의하면 칠레산과 스페인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유통현황

- 미국에서 판매되는 단감은 크게 미국 캘리포니아산, 이스라엘산, 스페인산, 이탈리아산, 요르단산, 멕시코산, 뉴질랜드산, 칠레산이 주로 유통되고 있음
- 미국 USDA에 의하면 2010대비 2011년 신선 과일의 수입량이 약 78억 달러로서 7% 정도 증가했으나 감의 증가폭은 데이터에 잡히질 않을 정도로 미비함.
- 한국 식품점, 일본 식품점 그리고 중국 식품점을 제외하면 미국 현지 식품점내 과일 진열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미국 현지 인지도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임.
- 한국산 감이 현지 이스라엘산과의 경쟁에서 가격과 당도 면에서 모두 뒤처짐. 식품점 과일 시식 도우미들이 가장 판매가 어려운 한국산 과일로 감을 지목함. (한국산 배 그리고 한국산 포도와 상대적 비교시)

- 한해 이스라엘 산이 가장 나중에 출하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산을 선두로 칠레산, 스페인산 등이 소비되고 난 뒤 이스라엘 산이 마지막 한해의 겨울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 말린 감(곶감을 비롯한 얇게 썬 형태의 말린 감) 또한 아직 인지도는 낮은 편임. 다만 한국 식품점과 일본 그리고 중국 식품점에서만 그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음. (제수용품 필요 시기에만 판매량 증가 양상)

□ 수입동향

- 10월에서 다음해 1월 중순까지 수입되는 감은 이스라엘, 이태리, 칠레, 스페인산 등으로 주요 수입국은 'Sharon Fruit'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이스라엘임.
- 한해 과일 시장에 가장 늦게 나오는 이스라엘 단감 시장을 칠레산과 스페인산이 급격히 추격하고 있음. 일부 마켓에서는 저온 저장으로 이스라엘 단감 과 시장경쟁을 진행중이기도 함.

□ 도,소매 가격 및 수입동향

- 뉴욕시 헌츠포인트(Hunts Point Market)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량이 연 6만톤으로 이중 이스라엘산이 50%, 캘리포니아산 25%, 칠레산이 15% 스페인산이 10% 정도로 점유
- 감 도매가격은 Kg당 US 달러 2.0~2.5 정도이나 생산시기 및 외국산 수입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12년 10월 뉴욕시 헌츠포인트 기준)

□ 시장 경쟁 상황

- 2012년 제4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감이 열대과일이 아닌 한국형 인과류로 분류되어 잔류농약 기준이 완화, 향후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 이스라엘산이 출하되기 전 미국산과 스페인산 감이 미동부 시장을 대부분 잠식함.
- 아시안 거주(한인, 일본인, 중국인등) 지역을 벗어나면 과일 진열대에서 보기 어려움.
- 포장 및 진열방식 (2012년 11월 10일 미국 동부지역)

			
날개 판매	일본 식품점 위주 소량	이스라엘 샤론감(바구니)	한국식품점

			
한국산 \$14.99/box	칠레산 \$11.99/box	스페인산 \$12.99/box	스페인산 \$19.99/box

			
스페인산 홍시 \$13.99/box	USA. 캘리포니아산 홍시 \$9.99/box	중국산 껏감 \$5.34/pack	한국산 껏감 \$5.99/pack

□ 미국산과 주요 수입국별 감 특징

- 미국 캘리포니아산: 넓고 납작한 편으로 9월부터 출하하여 12월까지 유통되며 크고 단단하며 당도(16이상)가 높아 한국산보다 품질이 좋다고 평가됨.
- 이스라엘산(샤론감): 좁고 도통한 소과로 미국산의 출하가 끝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유통되며 크기가 작으나 당도(18도)가 높고 가격이 저렴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음. 미주 한인들과 아시안들의 입맛에 맞아 가장 인기가 높음.
- 칠레산: 8-10월에 수입되어 유통되며 당도(16이상)가 한국산에 비해 높다고 함. 가격도 저렴한 편임.
- 스페인산: 8-10월에 수입·유통되며 모양이 예쁘고 고루며 한국산과 비슷한 식감을 지니고 있음. 당도는 한국산보다 우월함.

□ 미국 현지 한인 식품점 시식 도우미 반응

- 이스라엘 단감이 미주 동부 한인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음. 당도가 가장 뛰어남.
- 칠레산과 스페인산은 홍시일 경우 가격이 비싸더라도 꾸준한 손님층이 확보되어 있음. 단 단감은 칠레산과 스페인산에서의 당도의 차이가 이스라엘산에 비해 심해 손님의 반응이 엇갈리는 편임.
- 한국산 단감과 현지 미국산 또는 특히 이스라엘산, 스페인산과의 같은 시기의 시식 행사를 피하려고 함. (한국산의 당도가 심하게 떨어짐)

○ 한국산 식품 행사의 마케팅 문제

	청도 곶감 미국 뉴저지 한인 식품점 판촉행사 문제점 (2012년 11월 5일 뉴저지 포트리 한국식품전문점) ○ 진열대 가격표 미부착 ○ 상품 진열 방식(각종 광고배너에 가려짐, 반찬류와 젓갈류와 나란히 진열됨) ○ 한인 고객조차 모르는 행사진행 및 광고 ○ 상품 입점 시기(제수용품의 판매시기와 무관한 판매시기)
---	--

□ 향후 시장 전망

- 이슈 현안 - 이스라엘산 대비 칠레산과 스페인산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미국 현지 감 시장의 경쟁 심화 요인이 발생. 그러나 아시안 식품 매니저를 제외하면 여전히 미국 현지 식품점 매니저들은 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밀집지역 외에는 아직 눈에 띄는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뛰어든 수입국 다변화로 인한 이스라엘 단감의 가격 변동을 유심히 살피고 다른 국가 생산품의 가격 변화 조사 필요.
- 한인 식품점, 일본 식품점, 그리고 아시안 밀집지역을 제외하면 그 인지도가 매우 부족한 편이므로 지금 상승세에 있는 스페인산과 칠레산의 마케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스라엘산의 높은 당도와 식감에 대한 한국산의 대처 방안이 필요함.
- 시기별 각 수입원산지의 출하시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한국산의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출하 시기 조절이 필요함.

□ 기타 수출마케팅 고려 사항

- 한국산 단감(탈삼감)은 현재 미국 동부 지역 한인 식품점에서 이스라엘산과 스페인산 그리고 미국산에 밀려 높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 가장 큰 원인은 당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며 식감에서 이스라엘산과 칠레, 스페인산에 비해 거칠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비자들의 의견임. 다년간 이스라엘산의 당도와 식감에 맛들여진 한인 및 아시안 소비자들은 한국산에서 뚜렷한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